

고색창연한 목록으로부터 벗어나기

오늘의 삶을 돕는 지금 이곳에서의 책읽기 1

李重漢

서울신문논설위원·출판평론가

'93 책의 해' 프로그램의 하나로 이루어졌던 국제심포지움 '멀티미디어시대의 책의 진로'에 참가한 한 발제자 밀라그로스 델 코랄(유네스코 도서저작권 국장)이 마지막 시간에 한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는다. "한국에서 '책의 해'를 갖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놀라며 즐거워했는가. 그 즐거움 속에서 지금 이 심포지움이 끝나가고 있다"라고 그녀는 감상적으로 말을 맺었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더욱이 그 오랜 책의 권위의 역사가 어딘가 뉴미디어에 의해 조금이나마 변형되고 부수지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 고전적 독자들에게 있어, '책의 해'는 사실상 세계적 뉴스이며 이벤트이며 이슈일 수 있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그만한 세계화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좀처럼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93년 1년 내내 나 개인적으로는 끊임없이 답답했다. 이 답답함은 행사가 적어서도 아니고, 호응이 없어서도 아니었다. 오히려 1년 내내 끊임없이 호응을 해준 우리 언론매체들의 너무 큰 성의 속에서 나는 말할 수 없이 답답했다.

여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권장도서목록

무엇때문인가. 이는 하나의 反語法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많은 매체들이 '책의 해'를 기념하여 매주 한번씩 명저·명작들의 해제와 해설을 새롭게 썼다. 이 이상 더좋은 기획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목록들은 대부분, 한마디로 말해 고색창연했다. 고색창연하지 않았던 일부 목록들은 또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 사회의 상황 속에서 시의적으로 의미를 가졌던 역사를 대변했다. 이 목록들은 그러므로 세계변화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고집 같은 것까지 표현하고 있었다.

또다른 측면에서 어떤 목록도 개별로서의 版本과 質을 구분하지 않았다. 이는 특히 번역본들에서 그러했다. 책읽기는 마치 원저자와 책의 제목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태도를 공고히 주장하려는 것과도 같았다. 나에게 답답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이 느낌을 더욱 분명하게 해준 '책의 해'의 또다른 프로그램이 책의 해의 뒤끝에 나타났다. 국민독서실태와 독서진흥방안에 대한 대규모 설문조사 결과가 그것이다. 이 조사 결과도 대체적으로 이해하기는, 독서량이나 독서인구가 그래도 예상보다는 적은 것이 아니

라는 것이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국민은 7.4%에 불과하긴 하지만,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은 사람이 50.4%나 되지만, 읽은 사람이 49.6%는 되지 않는가라는 위안이 있었다. 하지만 이 조사에서도 나의 관심은 딴 곳에 있었다. 어떤 책을 읽느냐라는 목록을 보자.

학생들에게서 기억에 남는 책은 전체적으로 '삼국지' '어린 왕자'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가 머리에 있었다. 좀더 구분해 보아도 대차가 없다. 국민학생은 '삼국지' '논리시리즈' '이순신'이고, 고등학생은 '동의보감' '어린 왕자' '데미안' '대지' 이다.

그러나 이 책들을 통해, 이 정도 목록의 책을 읽고 그것에서 떠날 수 없을 만한 감명을 받고, 그리고 나서 점점 더 책읽기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 때, 그 앞으로의 사상은 무엇이 될 것인가를 질문해 보아야 할 당위가 오늘에는 피할 수 없이 있는 것이다.

이 질문을 좀더 천착하기 위해 하나의 조사 항목을 더 들여다 보려고 한다.

'좋아하는 외국저자 20위'

①시드니 셸던(6.5%) ②헤르만 헷세(1.8) ③펠 벅(1.5) ④헤밍웨이(1.4) ⑤톨스토이(0.9) ⑥경요(0.5), 에릭 시겔(0.5) ⑧생텍쥐베리(0.4) ⑨피테(0.4) ⑩도스토예프스키(0.4) ⑪엘빈 토플러(0.4) ⑫모파상(0.3) 아가사 크리스티(0.3) ⑬알폰스 도테(0.3) ⑭칼릴 지브란(0.3) ⑮미우라 아야코(0.3) ⑯마가렛 미첼(0.2) ⑰솔제니친(0.2) ⑱에밀리 브론테(0.2)

이 목록을 나는 다음과 같이 재배열해 본다.

①헤르만 헷세/펠 벅/헤밍웨이/톨스토이/세익스피어/생텍쥐베리/도스토예프스키/피테/모파상/알폰스 도테/마가렛 미첼/에밀리 브론테

②시드니 셸던/경요/에릭 시겔/아가사 크리스티/미우라 아야코/솔제니친

③엘빈 토플러/칼릴 지브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30년대에 일본 번역문학이 만들어낸 세계명작전집의 틀을 우리는 90년대에도 아직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목록에 다름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의 문학에서 수용된 것은 문학적이기보다는 대중소설적이다. 의외로 엘빈 토플러가 올라 있는 것이 그나마 수확일까.

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목록을 나열해 보자.

①헤르만 헷세/헤밍웨이/세익스피어/생텍쥐베리/도스토예프스키/솔제니친/엘빈 토플러/칼릴 지브란

②펠 벅/톨스토이/피테/모파상/알폰스 도테/마가렛 미첼/에밀리 브론테/경요/에릭 시겔

③시드니 셸던/아가사 크리스티/미우라 아야코

여기서 ①은 아직 읽을 만한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러나 ②는 꼭 읽어야 할 가치는 아니고 ③은 재미로 읽거나 또는 안읽거나 굳이 따져야 할 일은 아니다—이것이 나의 생각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국내 저자 20'에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름만 나열하고 재배열까지는 않으려 한다.

이문열/김홍신/한수산/신달자/박완서/이외수/유안진/이광수/김성중/박경리/김한길/조정래/박범신/이은성/김수현/정비석/최인호/이여령/법정/석용산

해방전 작가에서 아직 살아남은 이는 이광수·정비석 뿐이고, 여하간 아직도 순수문학이라는 주장이 문단내에 있다면 거기서 존재하는 이름은 이문열·박경리·조정래가 될 것이다.

나의 답답하다는 생각은 이것에 있다. 오늘 우리가 "읽자"라고 말하는 것의 내용은 무엇인가. "읽을 만한 책"을 말하는 것이고, 특히 "보통 사람으로서의 평균적인 독자가 그의 삶을 사는 과정에 세상을 이해할 뿐 아니라 보다 깊이 생각하며 사는 데 도움이 되고 위안을 받으며 의지할 수 있으며, 더욱 나아가면 삶의 창조적 발산까지에 이르게 해주는 책"을 뜻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런 책들을 "읽자"라고 말하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 그저 "읽자"라고 할 뿐이다. 그리고 누군가가 세심하게 읽으며 목록을 고르거나 챙기지도 않는다. 책을 추천하라 하면 우선 자기 책, 그 다음에 자기가 아는 사람의 책, 그리고 나서 자신이 성장할 때 읽었던 책을 권하는 사람들만이 그득한 게 현실이다.

이런 구조를 통해 변함없는 책의 목록 한 덩어리가 세상의 변화와 관계없이 지금 이 사회를 지배해가고 있다. 그래서 원산지에서마저 청소년에게 결코 권유하지 않기로 한 「혁클베린 편」이나 「주홍글씨」나 「그림동화집」이나 「안델센 동화집」들이 우리에게선 신주처럼 모셔진다.

뿐만 아니라 '도스토예프스키'보다 '시드니 셸던'이 앞서고 '세익스피어'보다 '경요'가 우위고 급기야 '솔제니친'보다도 '미우라 아야코'가 더 상위에 놓일 수 있게 됐다.

이런 평가나 표현은 물론 단정적이기보다는 하나의 상징적 비유법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비유 속에서 책읽기의 안내와 해제와 권유가 오늘에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암시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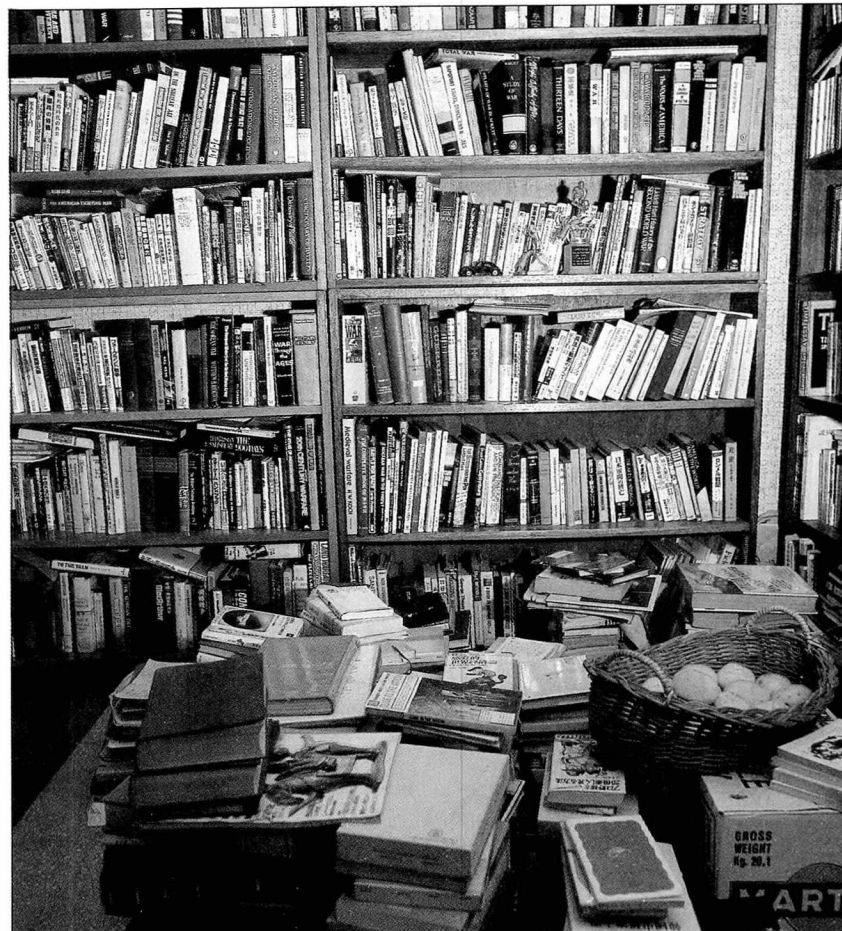
책을 읽는 것은 지식 때문만은 아니다

그런가 하면 책읽기는 지금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다. 뉴미디어시대 또는 정보화사회라는 변화 속에서 보통사람의 일상생활 속에 책의 위치는 피할 수 없이 협소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꼭 책을 읽어야 되는 것도 아니다. 책을 통해 얻어내던 정보들은 컴퓨터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더 효율적이다. 고품위 TV를 가지고 비디오그램을 보는 일도 책읽기보다 중요할 수 있다. CD-Rom이나 CD-I를 볼 수 있는 사람에겐 환상적인 백과사전적 책읽기도 가능하다.

현대적 삶의 운용에서는 개개인이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나누어 쓰느냐라는 능력이 그 사람의 부와 가난을 결정해 준다는 견해까지 나와 있다. 이 견해는 동의할 만한 것이고 그렇다면 시간의 효율적 사용에는 책은 오히려 비효율적 대체될 수 있다.

이 속에서 책은 인간에게 어떤 효용을 갖는가를 지금 책의 전문가들도 얼마쯤은 심각하게 생각해 보고 있다. 그렇다고 책의 생명은 끝날 것이라고 보는 것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오히려 책의 중요성은 두 측면에서 커지고 있다.

정보화사회의 모든 시스템은 아무리 그것이 화려하게 발전하더라도 기본적인 맹점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 기능들이 결코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컴퓨터 통 속에 들어 있는 모든 것은 여전히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만 존재한다. 집어넣을 때도, 뽑아내



쓸 때도 자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서만 그 자료들은 생명을 갖는다. 그래서 책읽기는 변함없이 필수적인 개개인의 기초적 능력으로 남는다. 때문에 이미 많은 선진국들에서 읽기 교육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컴퓨터 오락프로그램에 빠지기 쉬운 국민학생들에게 읽기의 요구는 더 엄격해지고 있다.

또 하나는 이제야말로 진실로 교양적인 책들이 책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희망적 관점이다. 책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지식과 정보를 위한 기능적 요구의 도서이다. 또 하나는 지금 당장 어떤 효용도 없어 보이는 교양적 도서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능적 도서에 매달려 왔다. 그 책들을 읽기에 허겁지겁하다가 지쳐서 물러나 앉았다고도 할 수 있다. 이제 이 책들은 뉴미디어들이 소화해 주게 된다. 남는 것은 물론 교양적 도서이다. 교양적 도서들은 앞으로 더 품위를 가지며 더 잘 만들어지게 될 공간이 크다. 왜냐하면 책 그 자체로서 나의 정신적 삶의 상징으로써만 쓰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책의 가치에 관한 표현들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이 교양적·정신적 상징들에 있었다. 그 예를 보자.

“책은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기적 중의 하나이니 그것은 무형의 것, 정신을 위한 유형의 그릇이다. 책은 인간과 같은 것이다.”

“책이 없는 방은 영혼이 없는 육신과 같다.”
“자신의 책이 없다는 것은 가난의 심연과 같다.”

“책은 가장 편안한 친구이다. 우리는 책과 더불어 원하는 시간만큼, 또 원하는 횟수만큼 대화할 수 있다.”

“책은 가장 지혜로운 노인이고, 가장 용감한 남자이다. 책은 어머니와 같은 여자요, 가장 사랑스럽고 어여쁜 처녀이다. 일곱 권의 좋은 책만 가질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필요치 않다.”

이 모든 표현들이 물론 각자에게서 다른 견해로 바뀔 수는 있다. 하지만 책이 ‘가장 편안한 친구’라는 것만은 누구에게나 진실일 수 있다.

책은 현실적인 도구가 원래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완벽한 개인적 자유의 공간이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의 조직은 점점 더 사람들을 개별화시키면서 개인의 자유 속에 개개인이

개성적 선택으로서만 살아가도록 만들어지고 있다. 이것이 더 좋은 삶의 방법인지, 아닌지는 물론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흐름을 막을 길은 없어 보인다.

책은 그러므로 정보화사회에서 사람이 의지해 살 수 있는 새로운 정신적 반력로서 새 위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지식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사는 방법중에 가장 품위있으면서 건실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는 방법으로써 그것은 위대하기까지 하다.

창의와 비전을 만들어내는 상상력의 통로

지난 90년 나는 이 지면을 통해 ‘세계의 추천도서’라는 연재를 한 일이 있다. 여러개의 교양도서목록을 점검하는 일이었다. 비교적 모범이 될 만한 고전적 목록들을 중심으로 했었다. 그리고 목록을 정한 주제들을 중시했다. 저명 대학이나, 저작자들의 명의를 객관적 기준으로 삼았었다.

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여기에 써보려고 하는 것은 전혀 반대의 입장이다. 우선 객관적 권위가 아니라 나 자신의 주관적 제안을 담으려 한다. 그리고 고전적 가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선 급하게 오늘·지금·이 시간을 사는 데 도움을 주리라는 책들을 중심으로 하려 한다. 그러므로 이 삶을 돕는 책 읽기 목록은 꼭 정중해야 할 의무도 갖지 않는다. 세상의 변화를 읽어야 하겠으나, 더 많이 단지 쉬기 위해서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컴퓨터 오락으로 쉬기보다, 비디오 보기로 쉬기보다, 어떤 책은 그 힘든 읽기로도 될 수가 있다.

알아야 할 지식의 기능 요구도 실은 소설 읽기로 할 수가 있다. 이즈음 씌어진 어떤 추리소설들은 세상 지식의 교과서보다도 더 잘 지식을 알려준다. 예컨대 핵무기 제조과정을 알려면 톰 클랜시의 「베카의 전사들」을 읽는 게 좋다. 최근 日本변호사들이 뽑은 「세계의 법률미스터리 소설 20」이라는 목록이 나온 게 있다. 스크트 더로의 「무죄추정」을 최고의 작품으로 선정했다. 미국의 배심제도를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소설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마찬가지로 잘 씌어진 역사소설은 언제나 그런 역할을 한다. 이런 목록들을 주제별로 풀라내 보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편 서평의 기능이 여러 개임을 설

명해 보려 한다. 우리 서평은 대부분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소설은 문학평론가가, 과학서는 과학자가 말해야 한다는 것에 묶여 있었다. 이렇게 되니까 서평을 읽고 나면 그 책을 읽기가 더 난감해지고 어려워지는 경우까지 생긴다. 소설이야말로 자기 느낌으로 읽는 것이 타인의 해석으로 읽는 것이 아니다. 물론 문학사학위를 받을 때엔 그렇게 읽어선 안될 것이다. 그러나 보통사람이 이론적으로 이해해야 할 일은 더욱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서평은 크리틱(Critic)과 리뷰(Review)로 나뉘어야 한다. 전문가의 작업은 크리틱이고 보통사람을 위한 도서의 안내는 어디까지나 리뷰여야 마땅하다.

리뷰에서도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어느 한 책의 배경까지 꼼꼼히 안내할 수도 있고, 또는 경쾌하게 이 책은 어떤 곳에 쓰일 책이라고 요구의 성격만 구분해 줄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완전히 사적으로 감성적 해제만 할 수도 있다.

내가 하려는 리뷰는 또 다른 것이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데 이 책은 어떤 발상법과 지혜를 아는 데 쓰일 수 있는가에 더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려 한다. 그리고 책 그 자체의 기초적 문제들을 또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생각이다. 즉 읽히지 않는 문장의 책들은, 특히 번역서들에 있어서는, 그 책이 아무리 좋은 책이라 하더라도 버리게 될 것이다. 혼자서 버린 것이므로 어떤 책을 버렸는지 알리가 없으므로 그 버린 책에 대해서는 나오려는 예의를 차리는 것이 될 것이다.

판권이 불명한 책, 또는 원전의 표기가 불

확실한 책, 오자가 너무 많은 책, 디자인이 너무 허술한 책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책의 전권이 아니라 한 부분만을 고를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일찍이 헤르만 헤세가 “밀튼의 「실락원」은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책”이라고 말했던 적이 있다. “그 책을 왜 읽으려 하느냐”고 기록해 놓았다. 이 방법은 사실 가장 잘 책을 소유하며 즐기는 길일 수 있다. 이보다 더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은 책은 통독을 할 이유가 없다. 어떤 章만, 또는 어떤 결론이나 요약만 읽는 게 더 현명하다. 이에 대한 견해도 내놓을 것이다.

한가지 더. 가능한한 현재 구할 수 있는 책, 그러니까 서점 점두에 나와 있는 책을 중심으로 할 것이다. 그러나 간혹 사라진 책들을 기록해 두지 않을 순 없다. 이럴 경우 그 목록은 그저 묘비명쯤으로 지나쳐 주면 족할 것이다.

엘빈 토플러의 규정에 의하면 제2물결에 있어 재화는 공장과 재고였고, 제3물결에서 재화는 지적 자본과 다양성이었다. 이제 제4물결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여기서의 재화는 또 무엇인가. 아이디어·정보·창의·비전이라고 본다.

책읽기는 아이디어와 창의와 비전을 만들어내는 상상력 얻기의 통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정리해 놓은 통로가 아니라 나 자신이 스스로 찾아내야 하는 통로라는 데 있다. 그 통로를 조금이나마 안내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이런 뜻에서 이 연재의 제목을 ‘삶을 돕는 책읽기’라고 붙인다.